**Anthony J. Tomasino 박사, 예수 이전의 유대교,   
세션 6, 그리스 통치 하의 유대인**© 2024 Tony Tomasino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안토니 토마시노(Anthony Tomasino) 박사와 예수님 이전의 유대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6, 그리스 통치 하의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죽음 이후에 뒤따른 혼란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글쎄, 그것에 대해 조금 요약하자면,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디아도코이 전쟁으로 알려지게 된 일련의 충돌입니다. 실제로는 기원전 321년에서 기원전 301년까지 곡선을 이루었지만 301년이 실제로 끝은 아닙니다. 갈등이 그 시점에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301년까지 우리는 동쪽에 세 개의 주요 세력을 갖게 되었고, 이 세력은 마케도니아에서 소아시아로 확장한 리시마코스였습니다. 여기 고대 페르시아 제국을 소유한 셀레우코스가 있고,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소유한 프톨레마이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281년에 여기 셀레우코스는 리시마코스를 물리치고 소아시아를 그의 영역에 추가했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셀레우코스는 자신을 조금 과도하게 확장하기 시작했고 결국 일부를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셀레우코스는 자신의 제국의 동쪽 부분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는 기원전 305년에 인도 영토를 잃었고, 기원전 248년에는 페르시아 영토도 모두 잃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그의 제국은 주로 메소포타미아와 소아시아 지역 및 시리아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바벨론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덩어리씩 쪼개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몇 세기 동안 유대인들의 삶에 큰 역할을 할 두 명의 주요 인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치하는 사람들에 대해 매우 대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이집트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통치자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 초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자들이 이집트 사람들, 즉 이집트 원주민에 대해 매우 악의에 찬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초기에는 어떤 이집트 원주민도 공직을 맡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마케도니아인만이 공직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지원 역할을 제외하고는 군 복무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큰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집트인, 원주민인 이집트인들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파라오의 상속자로 여깁니다. 아마도 그들은 과거에 파라오들에 의해 비슷한 방식으로 학대를 받았을 것 입니다 .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꽤 오랫동안 일종의 깊은 적개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원주민 이집트인들에게 슬픔을 더 많이 줄수록 그들은 친절과 사랑과 숭배로 더 많이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이겼습니다.

실제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후일에 이집트 문화를 받아들여 진정한 고대 이집트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클레오파트라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이집트 공주로 묘사한 방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마법을 걸고 있는 일종의 동양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셀레우코스와 그의 후계자들은 여기서 다른 종류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Seleucus는 자신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은 가부장적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 페르시아 여인들과 결혼한 알렉산더의 모든 장교 중에서 셀레우코스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그리스 문화를 통해 동방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주민들이 그리스 유형의 모델에 따라 도시를 재정렬하고, 그리스 건축 프로젝트 를 수행하고, 농구를 할 수 없는 체육관을 설치하는 등의 일을 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문화, 뛰어난 정신, 뛰어난 신체 등을 배운 곳이었죠.

도시는 그리스 원칙에 따라 조직되고 건축, 정부 거래 등에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는 도시인 그리스 스타일의 폴리스로 전환함으로써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셀레우코스 왕조는 그리스 문화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려고 노력했으며, 거의 자신이 통치하는 사람들과 일종의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유대인들은 결국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유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원주민을 경멸했으며,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들은 그들의 삶에도 별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세금을 내야 했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탐욕스러웠기 때문에 세금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제사장은 분명히 유대 지역을 거의 운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계속됐다.

유대인들은 유대법을 따르고, 안식일을 쉬고, 코셔 식사 등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좀 이상해졌습니다. 하지만 뭐, 뭐.

너 자신이 되어라 . 어쨌든, 이 시대에 발생했고 실제로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시대까지 계속 문제가 되었던 실제 난제 중 하나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사용했던 세금 징수 방법이었습니다 . 이것이 해결되는 방식은 각각의 과세 시스템이 지역 주민과 공무원이 해당 지역의 세금 인상을 담당하는 다단계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금을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들은 더 큰 지역을 담당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지불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돈을 제국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 가져갈 것입니다.

자, 이 시스템이 남용으로 만연했던 방식은 상급자들이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일부 지방 행정관에게 올해 당신의 지역에서 우리를 위해 500달란트의 금을 생산해 달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이 가서 밑에 있는 사람에게 '알겠습니다. 금 600달란트를 모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500을 가져와 셀레우코스 왕조에 지불하고 나머지 100은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의 부하들에게 각자 말합니다. "좋아, 너희 각자는 금 150달란트를 모으는 책임이 있다." 그리고 물론 그는 그들이 실제로 받도록 배정된 돈 외에 모든 돈을 챙겼습니다.

이것은 지방의 사람이 정말로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만큼 사람들을 흔들고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용인됐어요. 그것은 세리들에게 보상을 주고, 그들이 맡은 직무를 통해 일정량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준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이 주머니 사정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무에 대해 매우 세심하게 행동하도록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히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프톨레마이오스 치하의 유대인에 대해 우리에게 약간의 통찰력을 제공한 이 시대의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현재 우리가 제논 파피루스로 알고 있는 파피루스 모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유대인에 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귀중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제논 파피루스는 적어도 이 시대의 재정 행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합니다.

이 파피루스는 1914년에 비료를 캐던 두 명의 이집트 남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피루스는 이집트의 한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대한 캐시였습니다. 약 1,800개의 파피루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논(때때로 제노라고도 불림)이라는 이름의 이 친구의 개인 서류 였습니다 .

그는 기원전 284년부터 246년까지 통치한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재무장관이었던 아폴로니우스의 장교였습니다. 이 텍스트는 그의 경력 초기에 그의 여행과 사업 거래를 기록합니다. 초기 문헌 중 일부는 그의 팔레스타인 여행과 그곳에서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그는 주로 이집트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텍스트 중 하나가 노예 소녀의 판매 명세서입니다.

또한 그가 젊은 여성 두 명을 성매매로 인신매매한 사건과 이와 유사한 몇 가지 사건을 조사한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흥미로운 것들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해 두루마리에 비하면 정말 지루합니다.

내 말은, 이것들은 대부분 재무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 중 하나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이 많이 다루어야 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 하나가 토비아라는 이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느헤미야서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에서 암몬 자손의 종으로 불리는 이 토비아는 그가 문자 그대로 노예라는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상당한 고위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 토비아는 예루살렘 성벽 건설을 반대했고, 느헤미야는 그에 대해 좋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글쎄,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는 그의 후손 중 한 명이 이 텍스트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는 여전히 암몬 사람입니다.

토비아스 가문은 명백히 왕조를 갖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매우 부유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 지역의 정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 파피루스의 일부 사진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그것들은 특별히 흥미롭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종교적 발전이나 그런 종류의 어떤 것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 그들은 우리에게 곡물이 어떤 가격에 팔렸는지 알려줍니다.

그들은 노예가 무엇을 팔고 있는지, 임금이 얼마인지, 당시 이집트 제국의 수입이 얼마인지 등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모든 종류의 자료는 당시 제국의 역사를 발전시키려는 사람들에게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본문에는 유대인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지방 정부는 분명히 대제사장의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최근 일부 학자들에 의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대제사장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총독으로서 행동했다고 확신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주지사로 임명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물을 모으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게는 세금을 납부하는 한 괜찮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관심을 갖는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배열은 실제로 상당히 유명한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2세 시대까지 꽤 잘 작동했습니다 .

그는 그 시대의 다른 텍스트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니아스 2세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반기를 들고 세금을 원천징수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장악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는 이 시점에서 약간 물러나고 스스로를 강화했습니다. 오니아스는 프톨레마이오스 가문의 약점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녕하세요, 저는 셀레우코스 왕조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 라는 의미로 공물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글쎄, 예상했던 리더십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오니아스 2세를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단순히 그의 성직자로서의 시민 권위를 제거함으로써 그를 처벌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대제사장직을 유지했으며, 자신의 모든 종교적 의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의 재정 문제는 토비아드 가문 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

우리가 제논 파피루스에서 읽는 사람들은 느헤미야서에서 읽는 가족과 동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전체 갈등이 시작된 이래 거의 셀레우코스 왕조는 팔레스타인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게 넘겨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북쪽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 그 지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셀레우코스는 프톨레마이오스와 이 거래를 성사시켰고 , 그 지역의 상황이 정치적으로 좀 더 안정될 때까지 그가 팔레스타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글쎄,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가 그 거래가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느끼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셀레우코스 왕조는 이제 남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셀레우코스 왕조가 동부 영토를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의 즉시 인도를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를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바벨론을 잃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수도를 바벨론에서 시리아로 옮겼습니다.

이제 그들의 제국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팔레스타인이 당연히 그들의 영토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득 거래는 효과가 없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팔레스타인을 지키고 싶어합니다. 글쎄요, 기원전 274년부터 200년까지 우리는 시리아 전쟁으로 알려지게 된 일련의 전투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앞뒤로 오가며 주로 누가 두 나라 사이의 땅을 통제할 것인지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2세,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기원전 253년에 안티오코스를 프톨레마이오스의 딸 중 한 명과 결혼함으로써 평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안티오코스에게 이미 아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이미 아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딸이 아들을 낳고, 안티오코스의 첫째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셀레우코스 제국의 왕좌에 대한 경쟁 주장자들의 가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온갖 종류의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기원전 204년, 다섯 살 난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이집트의 왕이 되었습니다.

글쎄요, 안티오코스 3세에게 이것은 이제 움직일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고 그것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부터 빼앗았습니다. 이제 높은 세금을 처리해야 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유가 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에서 셀레우코스 왕조의 통치 아래로 전환한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통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더 온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그가 한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세금 징수원인 토비아드를 폐위시키고 대제사장을 유대인의 지도자로서의 지위로 되돌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을 다시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또한 폴리스 시스템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 스타일의 도시를 건설하는 시스템은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이들 도시에 세금 감면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다른 특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인들이 그리스 문화의 작은 전초기지를 갖도록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로 알려지게 된 이런 종류의 유명한 도시 그룹이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주로 그리스에 기반을 두고 동쪽에 그리스 도시로 건설된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좀 웃기네요.

우리는 그것을 데카폴리스라고 부르는데, 이는 10개의 도시를 의미하지만 항상 10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가 실제로 데가볼리의 일부인지에 대한 목록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데가폴리스에 대한 실제적인 엄격한 정의는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빅텐(Big Ten)과 같습니다. 현재 몇 개의 학교가 Big Ten에 속해 있나요? 아마 14정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요즘 그들이 데가볼리와 함께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 문화의 전초기지를 제공하고, 그리스 교육을 제공하고, 셀레우코스 제국에서 헬레니즘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그리스 스타일의 도시인 폴리스로 변한다면 멋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극장 같은 멋진 건물, 체육관 같은 멋진 건물 등을 짓고 싶은 곳에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폴리스가 되기로 결정했다면 우리 도시에서는 온갖 종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헬레니즘화파라고 부르는 급진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 자, 여기에 몇 가지 문화적 측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셀레우코스 왕조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음,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셀레우코스 통치는 그리스 문화의 확산을 장려했습니다. 세금 감면, 공적 자금, 그 모든 것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인들에 의해서도 헬레니즘의 채택은 고르지 못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는 그리스인 중 일부가 순수한 그리스 문화를 믿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알렉산더의 문화를 공유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양의 결합에 대한 비전. 그래서 다양한 수준의 헬레니즘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다양한 수준의 그리스 문화가 동양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유대의 유대인과 디아스포라의 유대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유대에 살 때 당신은 당신 문화의 모든 유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은 가리키면서 여호수아가 이 강을 건넌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이 건물을 가리키며 그곳이 나의 위대하고 위대하고 위대하고 증조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땅에 정착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뿌리에 대한 이러한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고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 지배 세력의 문화를 수용하고 문화에 적응하라는 압력은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덜 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고국과 분리됩니다.

그들은 사방이 이교도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상기시켜 줄 수 있는 물리적인 표시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사람들의 전체 사회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의 유대인들은 이집트의 유대인이나 시리아의 유대인, 또는 유대교 디아스포라의 일부로 흩어져 있는 다른 지역의 유대인보다 뿌리와의 연결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상류층 유대인과 하류층 유대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상류층 유대인들은 무역과 정부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그들의 군주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셀레우코스 제국과 프톨레마이오스 제국 전체의 무역 언어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들의 문화에 정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류층도 그리스 문화에 동화되는 경향이 더 컸다. 하층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그런 종류의 압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군주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같은 종류의 열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층계층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급자, 귀족들을 바라보며 그리스 옷을 입고 활보하며 서로에게 그리스어로 말하려고 애쓰며 생각하는 지망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그리고 어쩌면 그들을 약간 멍청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또 다른 점은 그리스 문화를 표면적으로 수용하는 것과 그리스 문화를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변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대에 발견된 의복 스타일 같은 것; 그들은 의복 스타일이 사람들이 문화적 접촉 상황에 처했을 때 아주 쉽게 채택하는 것 중 하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웃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아, 그거 정말 멋지구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옷을 입으면 좀 초초해질 수도 있겠네요. 건축 스타일과 같은 것에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아주 쉽게 채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보다 실질적인 변화는 사고방식, 종교의 패턴, 문화적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인에게도 자신들만의 이야기가 있었고, 유대인에게도 자신들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대인들이 모닥불 주위에 앉아 헤라클레스, 테세우스, 페르세우스, 미노타우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거의 장담할 수 있습니다. .

아니,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성경 이야기와 기타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이 시기에 유대인들이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를 화장적으로 채택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관해 쓰여진 많은 책들이 있는데, 아,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리스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그리스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 화장품이에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것은 어느 정도 고고학 기록에 남아 있는 종류의 일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을 보면 건물의 스타일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을 보면 의복 스타일이 다소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보다는 그리스어로 더 많은 비문이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사람들은 과거에 유대인들이 헬레니즘 문화를 수용한 헬레니즘화가 이 시기에 매우 철저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모두 외관상의 변화입니다.

윈도우드레싱 입니다. 유대인의 영혼은 유대인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유대 문화를 계속해서 고수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매우 정통하고 플라톤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사고 체계를 구축하고 있던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같은 사람조차도 돼지고기를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한 그의 설명은 그가 "나는 모른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었던 것은 그것이 모든 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것은 일종의 지나친 방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은 사물에 지나치게 탐닉하는 그런 사람들 이 아닙니다 .

그렇죠. 그래서 필로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맛이 너무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응.

건너지 못할 다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그의 마음 속, 핵심에는 그리스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리스어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셀레우코스 왕조는 그리스어 사용을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는 제국의 공용어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사업을 하려면 그리스어를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면, 누가 말해줄 사람을 가까이에 두십시오. 반면에 유대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리스어를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남겨진 많은 문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나는 이미 요세푸스가 부유한 상류층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어를 쓸 수 없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일을 하기 위해 첫 작품을 쓸 때 번역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흥미로운 관찰을 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 사이에서는 가장 낮은 종이라도 여러 언어를 마스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언어를 마스터하는 것을 교양의 표시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법과 전통을 터득한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본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세푸스조차도 그리스어를 아는 것이 그렇게 고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래야 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물론 디아스포라에서는 헬라어가 널리 퍼져 있었고 심지어 대부분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 유대인이었고 그리스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그리스어에 능통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약성서의 많은 편지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아마도 원래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인 사도들보다 언어에 더 능숙한 사람들에 의해 그리스어로 번역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아스포라 전체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그리스어나 최소한 번역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유대는 확실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정부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 이름을 채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흥미로운 것은 거의 모든 주요 인물과 심지어 유대 정부의 지도자였던 인물들도 히브리 이름과 히브리 이름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이름. 그리스 이름은 그들의 공개 이름이자 사업명이었습니다.

유대 이름, 히브리 이름은 그들이 집에서 사용하던 이름이었습니다. 이때 신체문화에 변화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미용적인 변화입니다. 가장 쉽게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도시 계획, 도시 스타일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자, 우리는 구약에서 장로들이 모일 때나 여러분이 재판을 하려고 할 때나 여러분이 바람을 피우려고 놀 때마다 모인 곳이 성문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고고학적으로 이 문은 대개 일종의 거대한 사건과 같았습니다.

때로는 그곳에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거기에 병력을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에 관한 잠언을 읽을 때, 그들은 어디에 모이는가? 그들은 성문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집행될 때 그 도시의 업무가 다시 일반적으로 성문에서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요즘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도시 광장은 사업이 수행되고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주요 장소로서 성문을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발굴조사를 통해 우리는 성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성벽을 갖고 있었지만 성문은 이전과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리스식 도시양식이었던 광장은 이 시기 건축과 동부 도시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도시 주변의 도시에 극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영역. 그리고 이것들도 일종의 흥미로운 발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극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그들이 그리스 사회와 그리스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도시에는 극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랍비 중 한 명이 유대인의 주요 도시 중 한 곳에 극장을 짓는 것을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은 랍비를 극장에 함께 초대했고, 그는 그를 극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극 공연 중 하나를 본 후, 왕은 랍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조상들의 법이나 전통에 어긋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랍비는 마지못해 '아니다'라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좋아, 뭐, 어쨌든. 하지만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극장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도시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훈련과 정신과 신체의 중심지인 체육관이 있습니다. 건물 스타일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주와 코린트식 수도 등의 사용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곳은 요르단의 거라사 (Gerasa) 라는 도시입니다 . 그리고 여기 기둥 꼭대기에 있는 코린트식 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둥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도 기둥이 있었어요. 하지만 꼭대기에 이렇게 양식화된 대문자가 있는 것은 그리스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Scythopolis 또는 Beth Shean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극장을 봅니다. 그리고 그 좌석은 엄청나게 불편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교회의 좌석에 대해 불평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정말,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아마도 베개는 직접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는 열의 행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스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열의 상단에는 대문자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의 몇 가지 확실한 변화는 동양 민족과 그리스 민족 간의 접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류 스타일. 자,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전통적으로 이는 대부분 아티스트의 연주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아시리아 벽 조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에게 이 벽 조각에서 이스라엘 포로로 묘사된 이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이런 긴 종류의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여자들은 긴 옷과 머리 덮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알몸이다. 하지만 여기 이 옷은 예술가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에 이것은 아마도 옛날의 평균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 다채로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장식, 막대기 등등, 그리고 여기에는 보통 두 겹의 옷, 예복 등이 있습니다. 꽤 정확합니다.

이제 그리스인들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리스인들은 다른 종류의 의복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매우 매끄럽고 어깨에 고정되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어깨에 자주 고정되는 로브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복은 중동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입는 예복보다 상당히 짧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 시대에 유대인들이 어떤 옷차림을 했는지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진을 찍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무도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자세히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베스파시아누스의 동전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과 그 모든 물건을 불태우고 황제가 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동전을 주조했습니다.

유대포로, 유대포로된 동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드레스를 입은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여성인데, 고대 유대인 여성의 전통 의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남자는 저 아래 맨발이에요. 그는 확실히 전통적인 근동의 긴 로브보다는 헬레니즘의 짧은 종류의 로브를 더 많이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서기 70년에는 의복 스타일에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일부 이스라엘 왕들의 묘사에서도 이를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실제로 여기에 사진이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일부입니다. 이것은 예후왕이 앗수르 왕 앞에 절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프리기아 모자라고 부르는 이런 종류의 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옆으로 늘어지는 일종의 소프트 캡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오래 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묘사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기가 그의 사원인 것 같군요. 그러나 이것은 물론 훨씬 후대의 예술가의 연주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동일한 원추형 크라운이 사용됩니다. 우리는 다른 영역의 일부 묘사에서 이러한 연대기 왕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헤롯 왕,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프리기아 모자가 아닌 원뿔형 왕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와 로마 왕들이 머리를 장식하던 방식인 월계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리스와 로마 지역을 많이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런 스타일의 머리 장식을 채택했습니다. 가정용 가구. 자,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종류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예술가가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집의 낮은 층은 대개 동물을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그들이 요리를 하거나 그런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열린 안뜰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층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잠을 자는 곳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앉아 있었나요? 글쎄요, 여기엔 의자가 하나도 없군요, 그렇죠? 그들은 어디에 앉아 있나요? 그들은 바닥에 앉아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그리스 가정과는 다릅니다. 나는 이것이 아마도 폼페이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리즈는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은 가족이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현대식 의자와는 달리 쿠션이 있는 일종의 높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게 더 편해 보이지 않나요? 이것은 냄비 위의 연회를 묘사한 그리스의 그림입니다. 그것은 외설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이 외설적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사람들이 하인들의 시중을 받는 동안 벤치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인들이 식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자유인은 옆에 기대어 식사를 하고, 하인들은 와서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예수님 시대의 한 장면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리를 꼬고 바닥에 앉아 있는 낡고 전통적인 스타일이 벤치에 앉거나 벤치에 기대어 식사하는 그리스 스타일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화장품.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벤치에 앉아 서로에게 호머의 책을 읽어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베이컨이든 뭐든 먹습니다. 여기서도 가족 구조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좀 더 실질적이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결혼 관습에 그리스가 미친 영향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대부분의 경우 그리스인들이 작은 가족을 좋아한다는 사실에 대해 몇 번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인들은 일반적으로 한 명의 아내만 결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여주인과 연인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남녀를 불문하고 연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족 자체에 관한 한, 그리스 가족은 자녀가 한 명, 어쩌면 두 명, 특히 아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첫째 아이가 아들이라면 둘째 아이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유아살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피임법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 여성의 지위는 좀 놀랍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여성의 지위가 구약 시대에 더 높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신약 시대에 더 높았다고 생각합니까?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학생들은 신약성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 등을 통해 그를 따르는 여성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회가 아니라 기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여인과 그녀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녀는 밖에 나가서 밭을 고려하고 그것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스 여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헬레니즘 문화에서 그리스 여성들은 남편의 승인 없이는 계약을 맺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의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인을 사거나 고용하여 구약 시대에 그녀의 집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로부터 일종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스 여성들이 좋아했을 많은 일들이 그들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약시대에 유대인 여인들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중 일부는 문질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문화 고유의 진정한 여성혐오에 대한 이러한 생각 중 일부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인류학자들 사이에는 이러한 물질 중 일부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 중 하나는 그리스 땅이 정말 매우 나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땅이 너무 나빠서 그리스인들은 끊임없이 기아 직전에 있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들은 작은 가족 규모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소년과의 성관계에 대한 그리스의 유명한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남자아이가 임신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러한 가족 규모 방식은 헬레니즘 세계의 많은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족과 많은 자녀를 갖는 것이 그들의 큰 기쁨이자 큰 축복의 표시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많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신약성서에서 일부다처제 개념이 대체되기 시작했음을 발견합니다. 장로들에 대한 바울의 요구 사항 중 하나는 그들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었을 때 사람들은 바울이 당신은 이혼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는 말 그대로 아내 서너 명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는 유대인 남자가 최대 3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그 기간에는 그 중 극소수만이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가족의 스타일이 별로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일부일처제와 미혼 아내의 스타일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마도 옛날에도 이스라엘에서는 미혼 아내가 항상 표준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당신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둔 왕과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매우 일반적으로 아내가 한 명 이상 있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는 관계에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독신 아내는 항상 이상적인 것 같았습니다. 재미를 사랑하는 부부인 아담과 이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께서 결혼에 관해 물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위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결혼 관습의 변화는 우리가 일부일처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의 주장에 의해 영감을 받았거나 장려되었습니다. 지참금 제도는 여성의 지위가 변화했음을 또 다른 방식으로 보여준다. 구약성서에서는 아내를 얻고 싶었고, 아빠에게 돈을 지불해야 했으며, 어떤 지위가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아내와 첩의 큰 차이점 중 하나였습니다. 아내를 얻으려면 일반적으로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신부값이 있었어요.

아내를 얻으려면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신부값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의 딸 미가엘을 아내로 원했을 때의 경우처럼요. 그는 적들의 다양한 신체 부위로 구성된 신부값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신부값은 어떤 의미에서는 결혼을 앞둔 여성을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여자가 가치 있고, 당신이 노력하고, 갖고 싶은 것, 그리고 돈을 들여 소유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말했듯이 첩은 대개 신부값을 치르지 않고, 그것이 그들이 일종의 이류 아내로 간주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의 지참금 제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참금 제도에서는 딸을 떼어놓으려면 남편에게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네.

따라서 이것이 그리스인들이 딸을 갖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딸을 일종의 재정적 책임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을 위해 남편을 구하면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성들이 결혼할 때 가져온 지참금의 종류를 볼 수 있는 이 시대의 많은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유대교에서도 여성의 지위는 확실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또 다른 사실은 이혼이 실제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엘레판틴 시대, 파피루스 시대, 페르시아 시대에 이혼이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그리스 시대에 더욱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바바타 기록 보관소(Babatha archives)라고 불리는 텍스트 캐시가 있는 곳에서 많은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서기 130년경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바타 부인이 여러 번 이혼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녀는 매우 부유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시작한 이혼 중 일부. 반면에 그것은 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유대 관습에서는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과 이혼하는 모습은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혼은 훨씬 더 흔한 일이 되었고, 예상되는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혼할 경우 각 당사자가 받을 금액에 대해 결혼 계약서에 기록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이 진행될 방식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적어도 유대교에서는 어린이의 가치가 그리스 문화의 확산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유대인들은 항상 많은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많은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이 유대인에 대해 정말 짜증나게 했던 것 중 하나는 그들이 대가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단지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리스 제국과 나중에 로마 제국에서 약간의 힘을 발휘하게 만들었습니다. 종교와 철학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흥미로운 바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 유대인, 특히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이 그리스 사상을 채택했다는 몇 가지 증거를 봅니다. 우리는 이미 알렉산드리아의 필로(Philo of Alexandria)에 대해 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플라톤과 조화시키기를 원했고 그렇게 하는 놀랍고 놀랍고 영리한 시스템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학 해석의 그리스 스타일 중 일부를 따르기 시작하는 성경 해석 시스템 등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많은 일들은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들이 헬라어를 읽고 듣고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 사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그리스 사상을 예루살렘 도시 자체에 도입하려고 하는 헬라화 세력을 봅니다.

그들은 얼마나 성공했는가? 글쎄요, 앞뒤로 움직입니다. 주로 그들의 동기는 그리스 문화가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그리스인이 되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인처럼 일하고 그리스인처럼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든 혜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금을 삭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멋진 건물들을 세울 것입니다. 따라서 헬레니즘화 정당은 주로 이념적 우려가 아니라 탐욕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개혁이 얼마나 깊이 이루어졌는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야기할 몇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보파에 속한 대제사장 중 한 사람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어느 정도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진술 중 일부는 우리에게 매우 모호합니다.

마카베오 서에 기록되었을 때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그러나 지금 그 내용을 읽고 있는 우리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헬레니즘화 단계 동안 이방인들은 심지어 성전 안뜰에서도 유대인 숭배자들과 자유롭게 연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후기 유대인들과 초기 유대인들이 보고 '이건 옳지 않다' 고 말했던 일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 다시 말하지만, 유대 자체에 혼합주의가 널리 퍼져 있었다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어로 새겨진 유대인의 돌 장례식과 같은 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이해에 있어서 더욱 그리스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로 여러 시대에 걸쳐 학자들에 의해 인용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증명하는 것은 돌을 조각한 사람들, 아마도 최고의 돌 조각가들이 그리스 사람이었고 그리스어에 능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리스 문화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에 의해 어느 정도 적응되었다는 실제적인 증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학은 어떻습니까? 좀 흥미롭네요. 유대인에 대한 최초의 그리스인 언급은 압데라의 헤카테우스라는 이름의 이 사람에게서 유래합니다. 그의 작품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후기 작품 중 일부에는 일부 단편이 있지만 Abdera의 Hecataeus는 유대인을 철학자의 종족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 대한 그리스 최초의 논평이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세계 여행가였습니다. 그는 유대로 갔습니다. 그는 그들의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우상이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처신하는 방식과 법, 윤리 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이 철학자들의 종족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그 사람들에 대한 놀라운 사고 방식입니다.

디아스포라 중에는 유대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필로(Philo of Alexandria)는 이들 중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다. 필로는 또한 자신보다 훨씬 더 발전한 다른 철학자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율법을 영적인 것으로 만든 유대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물론 그것이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매우 그리스화된 방식과 매우 그리스화된 사고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리스 철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때로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 중 하나는 서기 3세기의 유대 경전인 미쉬나(Mishna)에 호머의 글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글쎄, 그것은 호머의 글을 언급하지만 그들이 호머의 글에 무엇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들은 호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인들이 호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은 대부분 호머를 읽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호머가 그리스 문화의 전형으로 간주된다면 모든 그리스 소년은 호머를 읽고 자랐고, 호머의 글이 유대인들에 의해 인식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팔레스타인 유대교에서 그리스어 학습이 그리 멀리까지 진행되었다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채택한 것 중 하나는 점성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흥미롭습니다. 물론 점성술은 매우 오래된 관행입니다.

그것은 바빌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그리스인들이 바빌로니아인을 좋아했던 것 중 하나는 그들을 점성술의 아버지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아브라함이 점성술의 아버지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바빌로니아인과 이집트인 등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빌론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점성술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점성술과는 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는 신문을 가져와서 펼치고는 '아, 오늘 물병자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운세를 보고 오늘 당신이 키가 크고, 피부색이 좋고, 잘생긴 낯선 사람 등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점성술은 달랐습니다. 바빌로니아 점성술은 주로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이러한 아스트랄체 중 다수가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면, 하늘을 가로지르는 별이 총총히 빛나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신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다양한 영역과 지역에서 천둥의 중요성이나 다양한 행성의 움직임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것은 징조의 관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점성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둘 다 바빌로니아의 점성술사들을 조롱하는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도 그들을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 점성술은 어떤 면에서는 이교 숭배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뒤에 있는 이데올로기의 일부는 천체가 신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샛별이란 여신 이슈타르와 이런 것들이죠.

따라서 별이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이 별을 하늘의 빛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실제로 점성술의 기초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이 왔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바빌로니아인의 점성술을 채택했지만 다른 입장에 두었습니다.

보세요, 그리스인들에 따르면 점성술은 실제로 과학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에 대한 그들의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내 말은, 일종의 플라톤은 플라톤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실제로 발전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고 지구 주위를 도는 구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각 구체에는 서로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대기입니다.

그리고 지구를 둘러싸는 다음 구체는 여러분이 하늘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천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구체가 움직이고 회전할 때 서로 다른 속도로 회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구체의 음악이라는 문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글쎄요, 이 구체들이 서로 주위를 회전할 때 우주의 기본 음색인 이런 종류의 천상의 음악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낭만적인 아이디어지만, 물론 완전히 비과학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어쨌든, 하지만 두 몸이 서로 마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개념이죠, 그렇죠? 뜨거워질 수 있고 피부나 이런 종류의 물건이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의 구가 다른 구와 마찰을 일으키면 그 아래에 있는 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음, 이 구체들에 있는 위쪽에 있는 이 물체들의 움직임이 아래쪽 땅에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점성술은 과학적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양한 별자리의 의미, 별자리가 서로 상호 작용하는 방식, 다양한 별자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달력을 다양한 점성술 기호 등으로 나누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주에 대한 그들의 생각에 기초한 그리스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여담으로, 그리스 사상의 기초가 우스꽝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점성술이 여전히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점성술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마지 못해 그리스 점성술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해 두루마리 중에는 일반적인 그리스 별자리와는 약간 다른 주조된 별자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운세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 어떤 성격의 성격을 갖게 될지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에 상점에서 구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사해 두루마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리스인들이 당시 점성술을 사용하여 수행했던 것과 이러한 종류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서기 5세기의 일이다.

이것은 보존되어 있는 회당의 바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히브리어로 그 위에 이름이 있는 황도대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읽기가 좀 힘들지만, 이것은 황도대와 동일한 표시입니다.

보세요 , 물고기도 있고, 여기엔 레오도 있고, 전갈자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다양한 쌍둥이 자리, 쌍둥이 등, 이 모든 고대 점성술 기호는 서기 5세기 팔레스타인의 회당 바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예수님 시대에, 음, 예수님의 시대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시대 직후에 성전에서 동물 형상을 사용하는 문제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공공 건물에서.

그 당시에는 어떤 종류의 동물 묘사도 우상 숭배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AD 5세기에는 회당 내부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조금도 바뀔 수 없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 문화, 아니 오히려 유대 문화에서 그리스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일어난 변화는 대부분 표면적인 변화였으며 실제로는 그다지 실질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점성술과 몇 가지 다른 그리스 장신구.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조상의 전통과 그들에게 중요한 것 곧 주의 율법과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 조상들의 전통을 굳게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전통과 문화를 매우 확고하고 빠르게 고수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유대교를 가르쳤던 안토니 토마시노 박사(Dr. Anthony Tomasino)입니다. 이것은 세션 6, 그리스 통치 하의 유대인입니다.